



KDB대우증권 2012 회계연도 Annual Report

GO FOR ASIA PIONEER IB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Member 12/13

WE SUPPORT



GO FOR ASIA PIONEER IB

IR INFORMATION

결산일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3년 6월 21일

CONTACT US KDB DAEWOO SECURITIES

KDB DAEWOO SECURITIES IR팀
150-7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우증권빌딩
Tel : 82-2-768-3903/2103/2130 Fax : 82-2-768-2119
Email : irteam@dwsec.com
Website : <http://www.kdbd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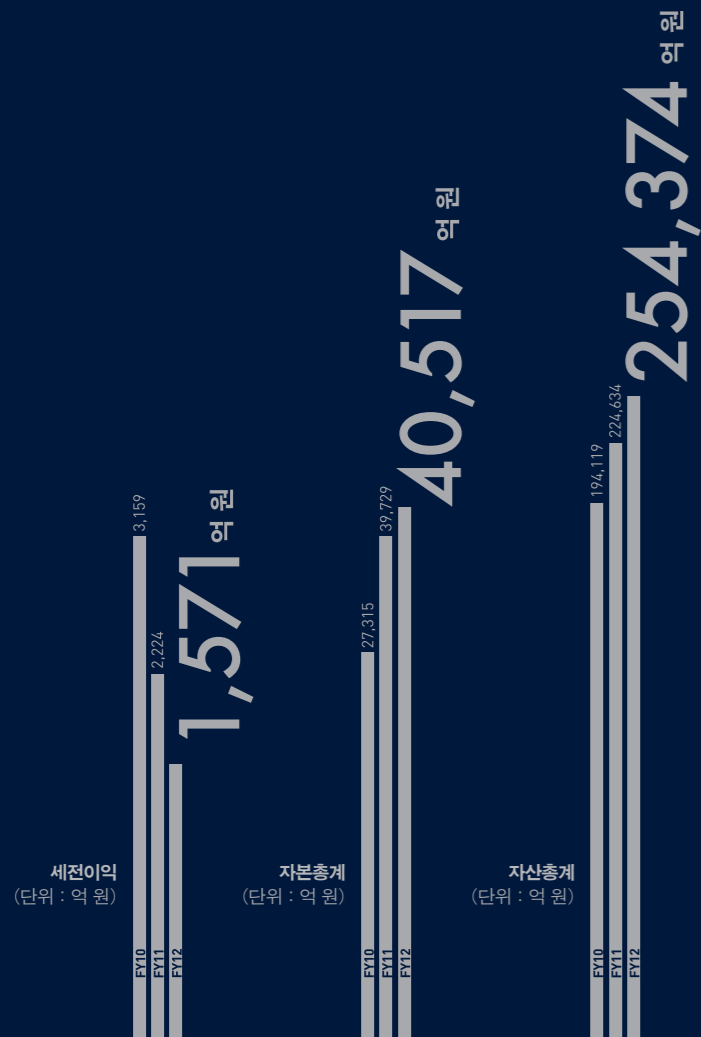
CONTENTS

회사 일반 현황	00 재무현황 & 회사개요 · 02 Go Ahead · 04 Go With · 06 Go Overseas · 08 CEO Message · 12 VISION & 5대 혁신경영 · 13 KDB Daewoo WAY · 14 FY2012 Highlights
재무현황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 21 경영환경 · 22 개요 · 23 부문별 영업실적 · 29 이자손익 & 판관비 · 30 재무현황 · 31 영업동순자본비율 & 리스크관리
	Financial Statements · 3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44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50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검토보고서 · 51 연혁 · 52 국내 지점 현황 · 54 해외 영업망

FINANCIAL STATUS _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영업수익	32,739	30,243	35,735
영업비용	31,329	28,129	32,740
영업이익	1,410	2,114	2,994
세전이익	1,571	2,224	3,159
당기순이익	1,267	1,669	2,259
자산총계	254,374	224,634	194,119
부채총계	213,857	184,905	166,804
자본금	17,039	17,039	10,209
자본총계	40,517	39,729	27,315
BPS (주당순자산) (원)	12,573	12,337	14,754
PBR (주가순자산비율) (배)	0.9	1.1	1.5
EPS (주당순이익) (원)	378	632	1,044
PER (주가수익비율) (배)	30.6	20.9	21.5
ROE (자기자본비율) (%)	3.2	5.0	8.1

* PBR, PER 은 당해 회계연도 말 주가임
* 2013년 3월 31 일 종가 11,650 원



GENERAL INFORMATION _ 회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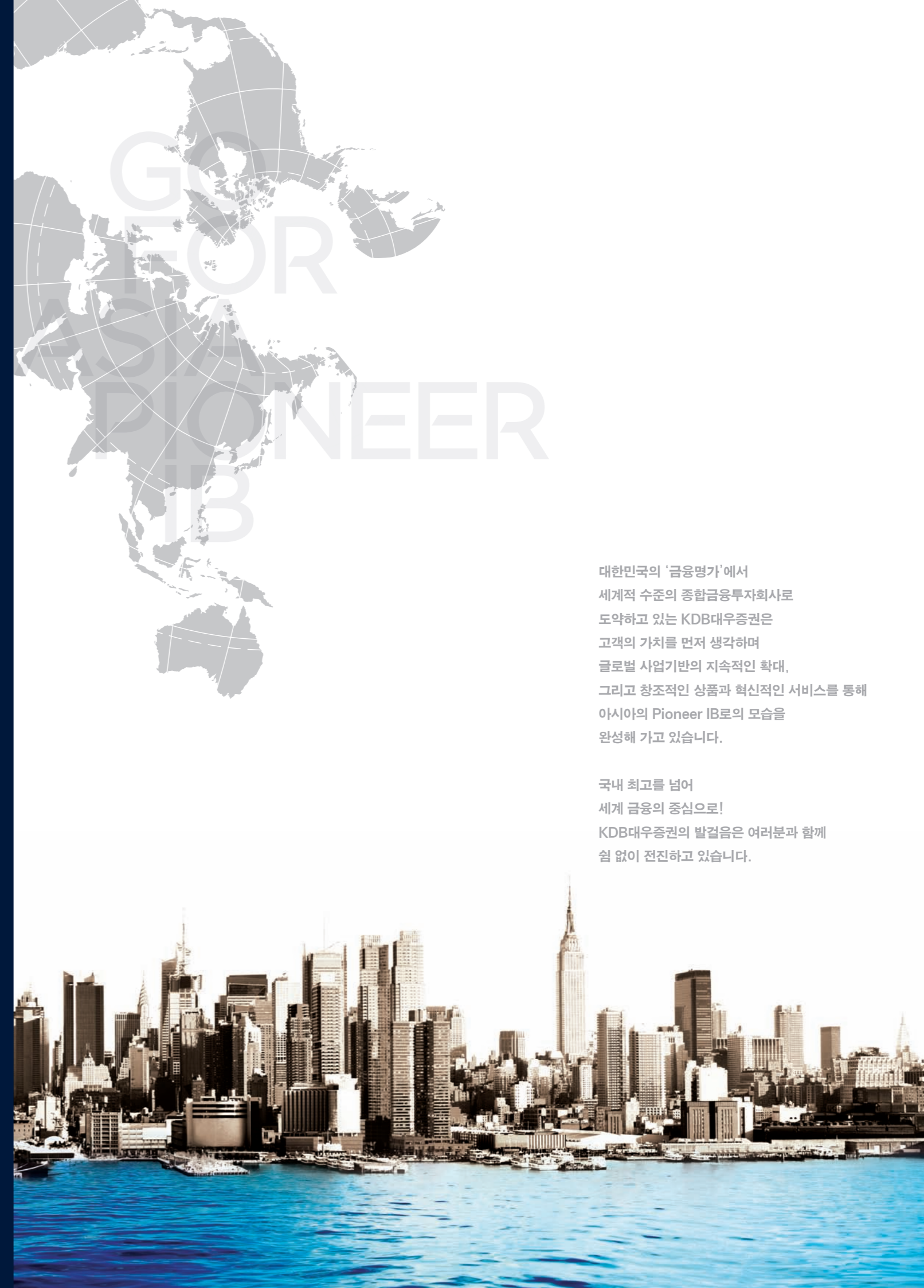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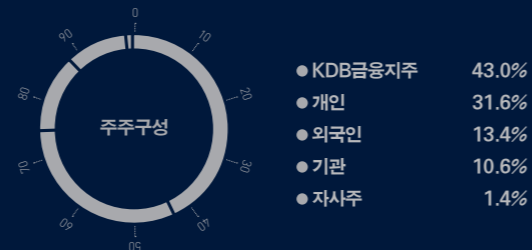
업종 : 금융투자업
 사업부문 : 위탁매매, 기업금융, 종합자산관리, 세일즈엔트레이딩
 설립일 : 1970년 09월 23일
 상장일 : 1975년 09월 30일
 대표이사 : 김기범
 임직원 수 : 3,109명
 국내영업망 : 105개 지점(1 영업부, 3 PB Class, 15 WM Class, 86 지점)
 해외영업망 : 4개 현지법인(홍콩, 뉴욕, 런던, 싱가포르), 1개 투자자문사(북경), 1개 지점(동경), 3개 사무소(호치민, 북경, 상해)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우증권빌딩

*2013년 3월말 기준

SHARE INFORMATION _ 주주정보

신용등급 : **AA+ Stable**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Baa2 Stable (무디스)

발행주식 수 (단위 : 주) : **326,700,891** 보통주
14,075,750 우선주



대한민국의 '금융명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글로벌 사업기반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창조적인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의 Pioneer IB로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KDB대우증권의 발걸음은 여러분과 함께
 쉽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명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글로벌 사업기반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창조적인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의 Pioneer IB로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KDB대우증권의 발걸음은 여러분과 함께
쉽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회사 일반 현황 00 재무현황 & 회사개요 · 02 Go Ahead · 04 Go With · 06 Go Overseas ·
08 CEO Message · 12 VISION & 5대 혁신경영 · 13 KDB Daewoo WAY · 14 FY2012 Highlights

재무현황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 21 경영환경 · 22 개요 · 23 부문별 영업실적 ·
29 이자손익 & 관관비 · 30 재무현황 · 31 영업용순자본비율 & 리스크관리

Financial Statements · 3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44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50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검토보고서 · 51 연혁 · 52 국내 지점 현황 · 54 해외 영업망



AHEAD

위기를 더 큰 기회의 디딤돌로 삼아 한발 앞선 전략으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업계 선도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Think you very much'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컨설팅 능력과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가치의 혁신은 물론 PB의 새로운 Role Model을 제시하겠습니다.



110 trillion

종합자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솔루션의 제공으로 2012년 말 종합자산 잔고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O



GO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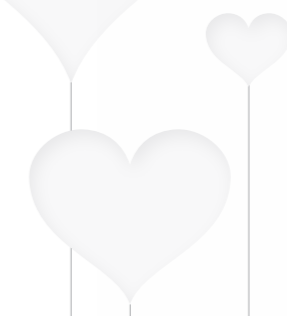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금융명가의 자부심으로
성장의 결실은 함께 나누고 지속성장의 가능성은 더 크게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쉽 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지원 등 함께하는 착한 성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신뢰받는 기업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장의
일등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진정한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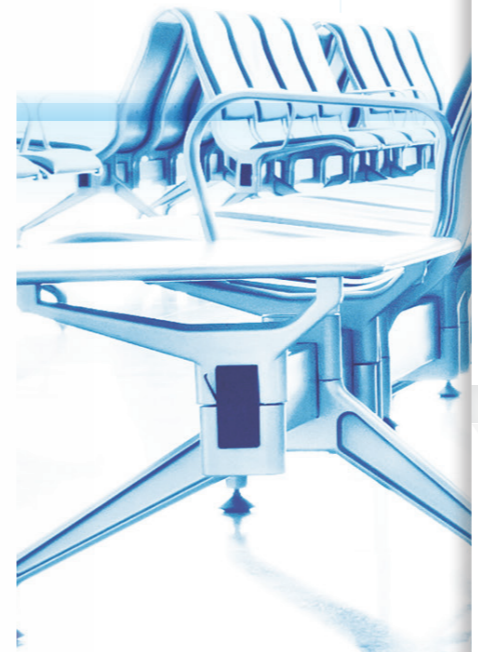
No.1



GO



GO



OVERSEAS

어려운 국내의 경제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인도네시아 이트레이딩 증권
경영권 인수, 몽골 합자증권사 설립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적극적인 제휴 및
KDB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확대하여, 아시아 Pioneer IB를 넘어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10%

6%

2013

2014

2015

해외수익
해외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해외수익 비중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GO



CEO MESSAGE

KDB대우증권은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은 물론
계속 기업으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위기 앞에 더욱 단단해지는 의연함으로
주주, 고객은 물론 국가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출발한 2012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2013년을 시작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둔화 등 수많은 난제들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느낀 고통과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증권업계는 대내외적인 악재 외에도 장기적인 시장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증권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회사 경영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KDB대우증권은 주주여러분들과 고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은 물론 계속 기업으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하나로 먼저 WM 부문에 대한 회사의 영업방향을 자산관리형 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 공급과 함께 인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당사 최초 고객 예탁자산 11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렇게 확장된 고객기반은 수익의 안정성은 물론 향후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IB 부문은 전통적 IB 시장의 침체 속에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였으며, 발전 PF 시장 진출, 국내 최초 공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Trading부문을 외화채권운용 비중 확대를 통해 증자대금의 자본효율성 제고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 노력한 결과, 수익 다변화는 물론 경쟁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달성하며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인도네시아 이트레이딩 증권 경영권 인수, 몽골 합자증권사 설립 등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3년은 대형 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한 신정부의 정책 추진 등으로 증권업종의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새롭고 다양한 사업 기회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고의 전환과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가이자 재판관인 올리버 홉스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 회복, 국내 금융명가의 위상 제고 등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당사가 가진 금융이라는 기술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사의 금융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이미 PBS, Hedge Fund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비해 미래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금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 유치, 적절한 투자처 발굴 등 국내외 고객들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형 중견, 중소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성장형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KDB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더욱 발전된 사업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Think you very much' 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고객, 직원, 회사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향점을 일치시키고 매순간의 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동양 최고의 고전 중 하나인 채근담에는 '바람이 비껴 불고 빗발이 세찬 곳일수록 발을 굳건히 세워야 하고(風斜雨急處 要立得脚定), 꽃이 활짝 피고 버들이 아름다운 곳일수록 눈을 높이 두어야 한다(花濃柳艷處 要着得眼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면 한 순간의 순조로움이나 한 가지 일의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의지를 굳건히 해야 자신의 이상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KDB대우증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위기 앞에 더욱 단단해지는 의연함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주주, 고객은 물론 국가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 KDB대우증권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기범

VISION & 5대 혁신경영

KDB금융그룹 비전

아시아 Pioneer 금융그룹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일을 성취해 내는 Pioneer 정신으로 한국 금융의 새 길을 열어나가는 금융그룹

KDB대우증권 비전

아시아의 Pioneer IB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핵심역량을 확보하여 Asia Top-Tier 그룹에 진입

글로벌 투자은행 도약의 기반

Customer-Focused
Globally Competitive
Strategically KDB-tuned

혁신 FORWARD

-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수익경영
- 미래의 먹거리에 대비하는 Global 경영
- 변화하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Active 경영

5대 혁신경영

혁신 NOW

- KDB대우인들의 잠재력을 도출하기 위한 Vision 경영
- 실기(失機)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속도경영

KDB Daewoo WAY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을 위한 행동원칙

KDB대우증권은 국내 1위 투자은행을 넘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KDB대우증권의 모든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KDB Daewoo WAY 를 선포하였습니다.

1. 우리는 항상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의 이익은 결국 우리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기업이 되는 길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들이 속한 사회와 소통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의 접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일등 투자은행으로서, 경쟁자와 차별되는 창조적인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이 없다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최고의 자산은 인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찾아 KDB대우증권 가족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는 팀워크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5. 수익창출은 우리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익은 우리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제공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결국 고객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수익창출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 우리가 속한 금융 산업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업무 할 때와 같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7. 우리는 KDB대우증권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FY2012 HIGHLIGHTS

Management Innovation

‘그룹시너지부문’ 신설 등 조직개편

KDB대우증권은 그룹계열사와의 고객·채널 공유, 해외시너지 구축, 시너지 인프라 강화 등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직할의 ‘그룹시너지부문’을 신설하고, 부문 산하에 그룹시너지 추진부를 편제해 조직화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질적 그룹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객·채널,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공동투자 교류활성화로 해외 시너지를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종합자산 110조 원 돌파

KDB대우증권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투자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고도화된 자산관리, 고객서비스 효율화,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고의 컨설팅 능력을 확보한 엘리트 PB하우스’를 목표로 자산관리형 영업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WM영업지원본부 내 ‘투자정보지원부’와 컨설팅지원부’를 편제하여 개인고객과 법인고객들을 위한 고급 투자정보는 물론,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 등 분야별 차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Open HR’ 실시

KDB대우증권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직원 개개인의 Vision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Open HR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Open HR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재 선발과 직원들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 및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점에서 필요 인력 규모와 자격 요건을 공지한 후 지원자들 중에서 최적의 인재를 경쟁 선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Open HR이 바르게 확립되고, 부점과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칙에 따라 운영할 방침입니다.



KDB대우증권 ‘Viewfinder D’ 설치

KDB대우증권 전 임직원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본사 17층에 전자게시판 ‘Viewfinder D’를 설치했으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엽서, 유선을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칭찬, 제안, 불만 등의 내용과 고객접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니즈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은 물론 전 임직원이 고객의 의견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직원의 관심과 참여도 기대됩니다.

New Businesses & Services



‘Folione글로벌-China’ 출시

KDB대우증권 자체적인 ‘중국상해종합지수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편입자산을 교체하는 자산배분형랩 ‘Folione글로벌-China’를 출시하였습니다. 폴리원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벌 투자 상품인 Folione글로벌-China는 시장 상승기에는 위험자산을, 하락기에는 안전자산을 편입하는 자산 배분을 기본 운용 전략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폴리원과 동일 하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자산배분모델이 아닌 ‘중국상해종합지수 자산배분모델’을 이용해 편입 자산 비중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상해종합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중국본토 주가지수 ETF를 편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엔화 약세 베팅 Wrap’ 히트

KDB대우증권 2012년 6월 출시한 ‘엔화 약세 베팅 Wrap’은 엔저효과가 본격화 되기 3개월 전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출시하여 6개월 반 만에 3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던 상품으로 향후에도 시장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터키 국채 상품 판매

KDB대우증권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안정성이 돋보이는 고수익의 터키 국채 상품을 국내 최초로 판매하였습니다. 터키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약 40% 수준(EU 평균 약 80%)으로 타 EU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신용등급도 최근 적격투자등급(BBB, 피치사 기준)으로 상향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 7년물 회사채 발행

KDB대우증권은 2012년 11월 20일 증권업계 최초로 7년물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였습니다. 3년물 1,000억 원과 5년물 1,500억 원, 7년물 50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확보한 자금을 단기 차입금 상환과 사업영역 확대에 대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PF 공동개발 참여

KDB대우증권은 2012년 10월 16일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1조 원 규모)의 금융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식물이나 미생물 등에서 얻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설비입니다. KDB대우증권은 재무적 투자자(F) 모집 업무를 맡아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주선과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서 선진국에 진출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FY2012 HIGHLIGHTS

Global Business



Global Alliance 강화

KDB대우증권은 2012년 10월 18일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 및 2012년 11월 23일 증권국제공고유한공사(BOCI)와 포괄적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KDB Daewoo IB Seminar를 개최하고 터키, 포르투갈, 미얀마 등의 대사를 초청하여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주제로 강연회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KDB대우증권이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 부문 'DJSI World' 지수 편입

KDB대우증권은 '2012 더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국제컨퍼런스'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 부문인 'DJSI World' 지수 편입을 인증 받았습니다.

특히, 윤리경영, 고객중심경영, 사내인력개발, 공시/보고업무, 근로자 인권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2,552개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World 지수에 편입된 340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음은 물론 금융투자업종으로는 세계에서 15개 증권사 중 하나로 선정되어 새로운 Milestone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KDB대우증권은 2012년 9월 14일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개설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현지 기관투자자와 KDB산업은행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권의 거점으로 삼아, 홍콩 현지법인과 함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입니다.

Corporate Citizenship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전개

KDB대우증권은 다문화가족 무료병원 5곳과 전국 10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24일 다문화가족 참가자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대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요리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경기도 주최의 '다문화가족지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사회공헌

KDB대우증권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트랙터 및 부속기계 기증과 사용법, 관리방법을 전수했으며, 2012년에는 KDB대우증권 임직원들이 DR콩고의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방목해 7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KDB대우증권 학교' 건축을 후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해외구호사업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추구하여 글로벌화에 한발 다가서고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청년사회적기업가 JUMP UP 프로젝트 지원

KDB대우증권은 2012년 6월 8일 청년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사회적기업가 Jump Up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창업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창업기업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해 10개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발한 뒤, 마케팅, 기술개발, 디자인, 기타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2012/13 AWARDS



2012. 05.02	2012 헤럴드 경제 자본시장 대상 자산관리대상
05.24	2012 대한민국 IB대상 시상식 최우수 M & A부문 중간사 선정
05.31	2012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 대상 시상식 고객편의성부문 최우수상
08.30	아시아경제신문 선정 2012 아시아 PB대상 우수상(아시아경제사장상)
09.10	2012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다문화가족지원 대통령 표창
09.27	제2회 아시아 스마트트레이딩어워드 종합대상(금융위원대상)
10.09	더존스지속가능지수(DJSI) 2012/2013 World 지수 편입
11.26	20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증권부문 경영혁신 최우수상
11.27	2012 아시아자본투자대상 리서치부문 최우수상
12.05	2012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펀드판매사상
12.06	제9회 펠어워드코리아 증권부문 대상
12.14	2012 대한민국 펀드대상
12.20	올해의 마켓리더상 IB부문 우수상



2013. 01.17	제15회 매경증권인상 기업금융부문 금상 2012 대한민국 베스트리포트 대상 최우수상
01.23	2013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온라인 부문 대상
01.24	제2회 연합미디어그룹 금융대상 종합대상 등 3관왕 (IB, 채권금리 전망, 증시 전망) 한국경제신문 2013 대한민국 펀드 대상 베스트판매사 선정 2013 더벨 리그 테이블 어워드 Best Bond Deal, Best IPO House
01.25	제4회 한국 IB대상 파생상품부문
02.13	제1회 뉴스필 캐피탈마켓대상 국회정무위원대상
02.14	제12회 한국펀드대상 증권부문 우수 판매사 선정
02.21	201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증권부문 최우수상 제4회 아시아펀드대상 베스트판매사 부문 최우수상
03.28	제8회 KOSDA 어워드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Deal of the year)



GO
ON
KDB
DAEWOO
WAY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여 온 KDB대우증권만의 가치 상승의 길은 위기를 넘어 고객신뢰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가치의 혁신을 이루어 내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의 모습을 완성할 것입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1. Business Environment 경영환경

2012 회계연도 KOSPI는 2천선을 가까스로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었으나, 다행히 주요 선진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도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수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회복 기조를 보이지 못하면서 KOSPI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나타냈으며 거래대금도 크게 감소하는 등 증권업의 경영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한 악조건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는 내수주 그리고 코스닥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음식료, 제약, 화장품 업종이 시장 대비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고, 장기간 부진한 시세 흐름을 나타냈던 통신서비스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경기 방어주로만 인식되던 내수주는 올해 아시아 경기 호조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입국한 해외 관광객 수는 무려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35%는 중국 및 동남아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 내수주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KOSDAQ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IT기업들의 선전과 새 정부의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 등 정책적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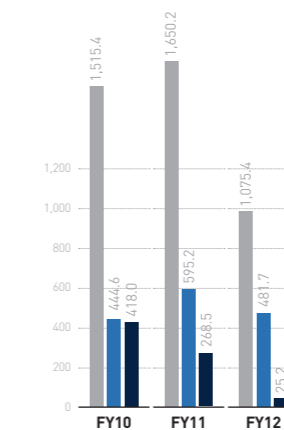
2012 회계연도 KOSPI는 2,004.89pt로 마감하면서 전년 대비 0.5% 하락했고 KOSDAQ은 555.02pt로 전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4.4조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34.0% 감소했고, KOSDAQ의 거래대금은 2.0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1% 감소하는 등 증권업의 경영환경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 외국인인 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뱅가드 펀드의 추종지수 변경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연기금이 8조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과 투신이 각각 10조 원과 4조 원을 순매도하면서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역시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은 부진했습니다. 반면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총 시장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18조 원이 증가한 73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며 훌륭한 투자대안으로 자리 잡은 한 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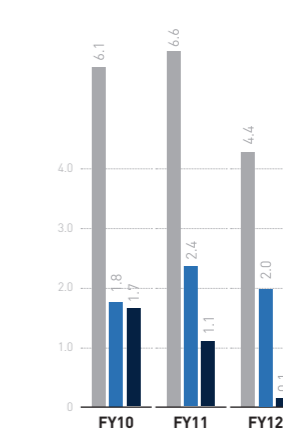
* 시장 총 거래대금 (단위:조 원)

● 거래소 ● 코스닥 ● EL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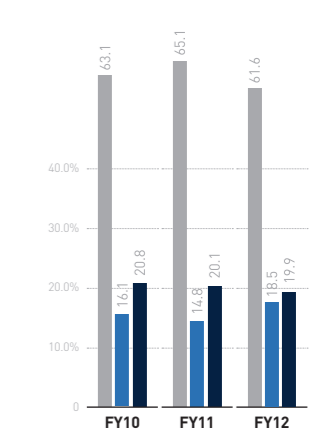
*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조 원)

● 거래소 ● 코스닥 ● ELW



* 시장 전체 투자자별 거래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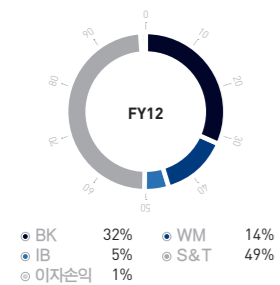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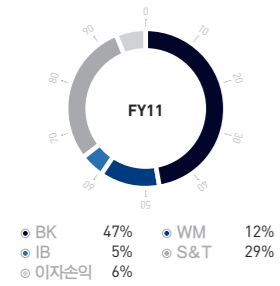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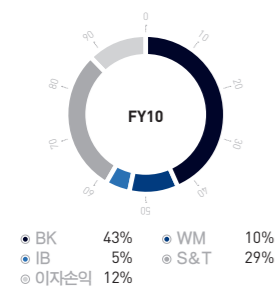
● 개인 ● 외국인 ● 기관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2. Overview 개요

사업별 수익 비중 (단위:%)



2012 회계연도 KDB대우증권은 7,110억 원의 순영업수익과 1,571억 원의 세전순이익, 1,26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12 회계연도 말 총 자산 25조 4,374억 원, 총 부채 21조 3,857억 원과 4조 517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rokerage 수익은 2,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거래대금의 급감, 개인 투자자 비중 감소,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수수료 시장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WM 수익은 1,019억 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WM 잔고는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대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파생결합증권, Wra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고른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IB 수익은 36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통적 IB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조화금융 및 발전 PF 등을 기반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였으며, PE, M&A 등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시장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Sales & Trading 손익은 3,65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외화채권 운용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는 등 체계적인 운용 자산 다변화 및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수익 증대는 물론 회사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순영업수익	7,110	7,743	9,634
Brokerage 수익	2,415	3,845	4,324
WM 수익	1,019	1,008	995
IB 수익	365	436	546
Sales & Trading 손익	3,655	2,316	2,930
이자손익	70	503	1,224
기타	△221	△2	△18
수수료비용	△193	△362	△367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701	5,629	6,640
영업이익	1,410	2,114	2,994
영업외손익	161	109	165
당기순이익(세전)	1,571	2,224	3,159
법인세비용	304	554	899
당기순이익(세후)	1,267	1,669	2,259

3. Brokerage Business Brokerage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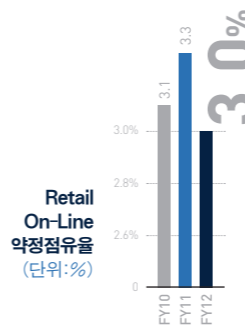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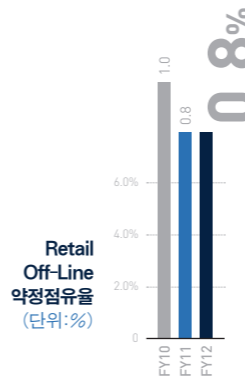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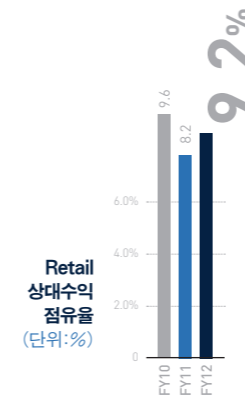
Brokerage 수익

Brokerage 수익은 2,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의 급감, 개인의 시장 참여 축소와 수수료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수수료 시장 규모가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영업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제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내실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 전사 Brokerage 점유율 (단위: %)

	FY12	FY11	FY10	
수익	전체수익점유율	6.6	6.2	6.9
	주식수익점유율	6.2	5.7	6.4
	선물수익점유율	0.2	0.2	0.2
	옵션수익점유율	0.2	0.2	0.3
약정	주식약정점유율	5.5	5.6	6.0
	선물약정점유율	4.4	4.8	4.6
	옵션약정점유율	1.2	1.7	2.5



Retail Brokerage

2012 회계연도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6.3% 감소한 6.4조 원을 기록하였고, 개인의 거래비중 또한 61.6%에 머무는 등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반면 Retail 수익 M/S는 전년대비 0.3%p 증가한 5.7%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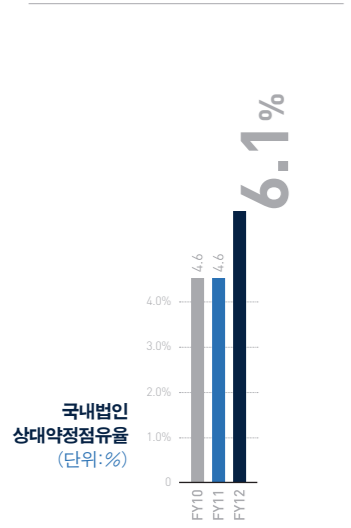
당사는 Retail 전담 리서치 조직을 통해 양질의 투자정보 지원은 물론 Retail Brokerage 영업을 직·간접 지원하며 고객에게 한층 더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세미나 지원, VIP 1:1 투자 상담, 기업 동행 탐방 등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를 돕고 있으며, 아울러 PB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PB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MTS 거래확대 등 IT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홈페이지 트레이딩 환경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5월에 한경 대한민국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고객편의성부문 최우수상', 9월 '제2회 아시아 스마트트레이딩어워즈' 종합대상(금융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서비스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 Retail Brokerage 점유율 (단위: %)

	FY12	FY11	FY10	
수익	상대수익점유율	9.2	8.2	9.6
	수익점유율	5.7	5.4	6.1
약정	Off-Line 약정점유율	0.8	0.8	1.0
	On-Line 약정점유율	3.0	3.3	3.1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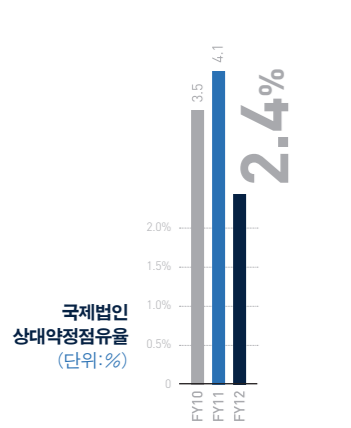
국내법인 Brokerage

브로커의 탁월한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성 높은 투자 아이디어 제공, 트레이더의 신뢰성 높은 매매체결 능력 등에 힘입어 주요 법인고객들로부터 최고의 거래증권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내법인 Brokerage 상대약정 M/S는 6.1%를 기록하며, 대형 자산운용 계열사 부재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상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법인 Brokerage

국제법인 Brokerage 부문은 수익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고객 만족도 향상과 영업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과의 더 많은 접점 확보와 효율적 영업활동을 위하여 서울과 런던,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의 영업력을 보강하였으며, 인력 재조정, 현장 지원 업무의 분업화를 통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미국 보스턴 및 뉴욕에서 KDB DAEWOO Corporate Day US가 총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주요 관심기업을 섭외하고 1 : 1 미팅 위주로 진행하는 등 고객 지향적 영업 활동을 통해 행사의 질과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국내기업들과 기관투자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PBS

PBS부문은 2013년 3월 현재 4개 운용사, 7개 Hedge Fund의 Prime Broker로 선정되어 위탁매매, 신용공여, SBL, Swap 등 관련 Service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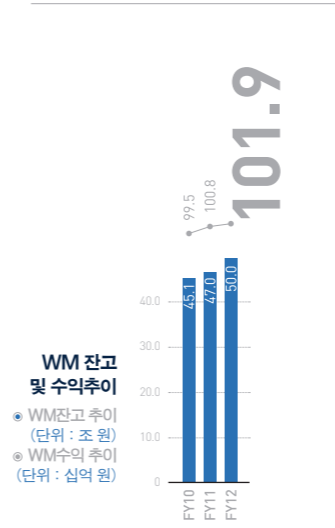
선도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업계 유일의 Hedge Fund 전담 Research 조직을 구축하여 대고객 서비스 역량 제고는 물론 업계 최대 규모의 신용공여 및 환매조건부 매매잔고를 보유하여 Leverage 활용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Wealth Management Business_ 금융상품판매 부문

WM 수익 현황

WM 부문 수익은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WM 잔고는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대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파생결합증권, Wra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고른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선도적 상품 공급은 물론 PB별 수차례의 Role-Playing을 통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체득과 정기적 PB지식 테스트 등을 통해 영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 최초 고객 위탁자산 110조 원을 돌파 하였습니다.



HNW 마케팅 강화

KDB대우증권은 High Net Worth 고객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HNW 마케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HNW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화 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은퇴/부동산/세무 컨설팅 전문가 그룹을 확충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합 금융 점포 확대를 통한 그룹 시너지 창출

지난해 복합 금융 점포(BIB: Branch in Branch) 7개소를 추가로 오픈하여 현재 총 8개의 복합 금융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과 KDB산업은행이 한 곳에 자리한 BIB점포에서는 당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증권업무 뿐만 아니라 예·적금과 대출업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DB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은 물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 경쟁력 제고의 전초기로서 선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품 출시를 통한 고객 기반확대

당사는 '저성장', '저금리'의 구조적 환경변화와 안전자산 선호 트렌드에 맞춰 '특별한 RP'와 '특별한 채권'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특별한 상품 판매와 Up-selling을 통해 고객자산기반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 Investment Banking Business_ 기업금융 부문

IB 수익

IB 수익은 36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통적 IB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조화금융 및 발전 PF 등을 기반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였으며, PE, M&A 등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시장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공기업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발전 PF 사업 진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신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FY2012 리그테이블 (단위: 억 원)

대표주관 실적	시장점유율	순위	
IPO*	977	11.3%	3
유상증자*	895	6.9%	5
ABS*	45,893	25.7%	1
회사채*	26,256	5.3%	6
M&A**	18,293	12.9%	2

* The bell league table FY2012 기준, ** Mergermarket FY2012 국내 증권사 기준

ECM 부문 : IPO 부문은 2,000억 원 이상의 유일한 Mega Deal인 CJ헬로비전 IPO(2,932억 원)를 주관함으로써 리그테이블 3위를 달성하였으며, 유상증자 부문에서도 롯데손해보험(737억 원), 현대상선(1,969억 원) 등 주요 Deal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블록세일 부문은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도 KEPCO 보유 한전KPS 지분 매각(1,100억 원), 군인공제회 보유 MKIF 지분 매각(1,200억 원), 대우건설 보유 CJ대한통운 지분 매각(1,045억 원), 아시아나항공 보유 CJ대한통운 지분 매각(500억 원)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블록세일 주관 성과를 보였습니다.

DCM 부문 : 회사채 부문은 한국서부발전(1,000억 원), 한국남동발전(4,000억 원)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주관하며 국내 최초 공기업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Global Bond(USD 1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당사의 차별화된 해외 Sales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조화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증권사 최초 통신3사(KT, SKT, LG U+) 단말기할부대출채권 ABS발행을 주도하며 단말기할부대출채권 유통화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보 P-CBO(7,017억 원), 주택금융공사 MBS(3조 6,349억 원) 등 정부 정책 Deal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바 있으며 LH공사 ABS(7,000억 원), 아시아나항공 ABS(4,000억 원) 등 대형 Deal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모 ABS 대표주관 실적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Advisory 부문 : M&A 부문에서는 제일 등 6개 저축은행 매각 자문(총 3조 원), 대한통운 매각 자문(1.9조 원) 등 Mega Deal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Squeeze-out Deal을 수행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당사는 아사히글라스 보유 한국전기초자 지분에 대한 Squeeze-out Deal을 수행하였고 이는 M&A 관련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PE 부문에서는 당사 최초의 단독 GP Project PEF를 설립하여, 폐기물 매립회사 경영권 지분(100%)을 인수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 등 전문섹터에서의 Track Record를 축적하고 향후 관리보수 및 배당 수익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PF 부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은 발전소·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양주 옥정 집단에너지 발전 PF(1,100억 원)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월 태양광 발전 PF(1,400억 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1조 원)인 영국 Teesport Biomass 발전 PF 금융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금융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이며, 특히 유수의 유럽 투자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Deal 수입에 성공한 뜻 깊은 성과입니다.

안정적 수익 창출 및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IB 부문은 전통적으로 시장 변화에 따른 높은 수익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당사는 시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당면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 첫째로 단순 상품 판매 전략에서 탈피해 고객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Solution 제공으로 영업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당사 대표주관으로 발행된 한국서부발전 하이브리드채권이 그 좋은 예입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발전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 결과, 한국서부발전의 하이브리드채권이 첫 결실로 나타났으며, 이후 한국남동발전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PF 및 인프라금융 주선 등 신규 수익원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한국남동발전, 예코프런티어와 함께 영국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295MW)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하였던 기존 해외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등급 AAA인 선진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금융자문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관련 성과들입니다.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 Global Bond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관련 Track Record를 축적하였습니다. 향후 홍콩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Global Sales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계 IB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터키에서는 IS Investment와 협업을 통해 발전소 PF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BOCI, BOC HK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홍콩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CIMB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6. Sales & Trading Business 유가증권운용 부문

Sales & Trading 손익 현황

Sales & Trading 손익은 3,65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외화채권 운용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체계적인 운용 자산 다변화와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수익 증대는 물론 회사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3년간 회사 전체 수익의 30~40%를 담당하며, 위탁매매 수수료에만 의존해왔던 국내 증권사의 전형적인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선진 투자은행형의 수익모델로 성장하는데 선구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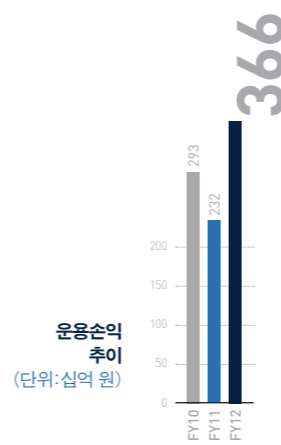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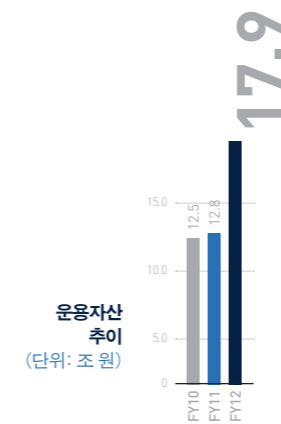
Sales & Trading 부문별 성과

채권 부문 :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 및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업계 최초로 In-house Research 조직을 구축하여 적시성 있는 투자정보와 전략을 제시하는 등 운용조직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운용의 스펙트럼을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기회로 삼아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은 물론, 홍콩 채권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Major play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파생 부문 : 기존의 ELS 중심에서 DLS 와의 균형 잡힌 시장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 위주였던 국내 DLS시장에서 신용 및 Hybrid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며 고객의 수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또한, 업계 최초로 국내외 Trend 분석, 상품리서치, Sales와의 유기적 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신디케이트 기능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품 설계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신상품과 독보적인 Sales 역량을 바탕으로 ELS 발행 6년 연속 1위(발행금액 6.5조원/MS 13.7%), DLS 압도적 1위(발행금액 5.4조원/MS 20.9%)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추이 (단위: 십억 원)

	FY12			FY11			FY10		
	발행금액	점유율	순위	발행금액	점유율	순위	발행금액	점유율	순위
ELS	6,462	13.7%	1	5,446	13.9%	1	4,021	13.7%	1
DLS	5,366	20.9%	1	2,578	16.5%	2	1,810	18.9%	1
합계	11,828	16.2%	1	8,024	14.7%	1	5,831	15.0%	1

고유자산 부문 : 당사의 고유자산 부문은 비유동적인 분야 중심의 중장기 투자를 주업무로 하는 PI(Principal Investment) 부문과 실무자산 및 Project Financing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는 AI(Alternative Investment)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I투자에 있어 사모 메자닌 투자는 물론 WTI, Copper 등의 Commodity FX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산을 다변화하고, Global Macro, Event Driven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의 증권사 고유자산 투자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투자 역시 기존의 부동산 PF 투자 외에도 자원 등 대체투자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ANKOR 유전펀드, 부동산 PF 투자 등을 구조화하여 성공적으로 Retail 시장에 공급하며 부문간 시너지 창출 및 고객의 수익성 제고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7. Global Business_ 해외사업 부문

KDB대우증권은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인력, 자본금 등 해외 영업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홍콩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 Global Trading Center 오픈 등 경쟁력 강화의 노력을 통해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도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대한민국 증권사 해외 점포 중 규모와 수익성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 새롭게 Investment Management 기능을 Set-up해 전 거점의 해외자산투자, 해외상품 개발 및 판매의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투자기회를 모색 중이며 직접 투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 대상 상품화의 창구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중심의 이머징 마켓 진출을 가속화하여 신규 네트워크 확보 및 영업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인도네시아 이트레이딩 증권 경영권 인수, 몽골 합자 증권사 설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함은 물론 국내외 고객들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8. Interest Income_ 이자손익

2012 회계연도 이자손익은 전년 대비 433억 원 감소한 70억 원(채권포지션에 대한 이자손익 불포함)을 기록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증가에 따른 관련 이자비용 증가로 기타이자손익이 51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예탁금 관련 이자와 배당수익 또한 각각 151억 원, 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대고객 신용공여 확대에 힘입어 대출금 이자는 2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9.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SG&A) Expenses_ 판매비

2012 회계연도 판매비는 전년 대비 72억 원이 증가한 5,70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2013년 초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퇴직급여 49억 원과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수리적손실 190억 원 등으로 고정성 인건비가 전년 대비 1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는 전년 대비 46억 원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은 전년 대비 9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고정성 및 변동성 인건비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인건비	고정성	3,209	2,743	3,026
	변동성	511	673	1,121
	합계	3,721	3,416	4,148

* 판매관리비 내역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인건비	3,721	3,416	4,148
급여	1,946	1,715	1,736
퇴직급여	668	408	618
복리후생비	1,106	1,293	1,793
전산운용비	208	213	235
임차료	219	194	266
지급수수료	100	96	103
집대비	61	77	76
광고선전비	232	278	402
감가상각비	300	332	317
조사연구비	15	13	36
연수비	41	61	35
세금과 공과금	221	317	362
기타	584	633	660
합계	5,701	5,629	6,640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10. Financial Position 재무현황

KDB대우증권의 2012 회계연도 총자산 규모는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25조 4,374억 원으로 전년의 22조 4,634억 원에 비해 13.2%인 2조 9,7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이 전년 대비 0.7조 원 증가하였고, 유가증권은 원화채권에서 1.6조 원, 외화채권에서 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서는 1조 원이 증가한 반면, 자기매매, 위탁결제, 이체출금 미수금 등 기타자산에서 1.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부채 규모는 21조 3,857억 원으로 전년 18조 4,904억 원에 비해 15.7%인 2조 8,9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증가 및 대고객 RP에도 증가로 차입부채가 1.7조 원 증가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 발행증가에 따라 관련부채가 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위탁자예수금 및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 투자자예수금은 전년 1.7조 원에서 2조 원으로 0.3조 원 증가하였으며 미지급금 등 감소로 인한 기타부채는 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4조 517억 원으로 전년 3조 9,730억 원에 비해 2%인 7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전년과 동일한 1조 7,039억 원으로, 2013년 3월 말 기준 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는 326,700,891주이며, 우선주 주식수는 14,075,750주입니다.

*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현금 및 예치금	35,299	34,419	32,715	32,066	10,798	10,513
유가증권	181,869	179,560	147,933	146,805	138,534	138,797
파생상품	6,008	5,723	3,029	3,028	2,095	2,096
대출채권	15,852	15,852	14,851	14,851	18,484	16,798
유형자산	2,496	2,470	2,578	2,557	2,655	2,643
기타자산	12,850	12,388	23,528	23,024	21,553	21,219
자산총계	254,374	250,412	224,634	222,331	194,119	192,066
예수부채	20,749	20,781	17,401	17,410	20,897	20,907
차입부채	181,798	178,408	150,224	148,561	127,245	125,413
기타부채	11,310	11,023	17,279	16,749	18,662	18,328
부채총계	213,857	210,212	184,904	182,720	166,804	164,648
자본금	17,039	17,039	17,039	17,039	10,209	10,209
자본잉여금	6,601	6,600	6,610	6,610	2,248	2,235
자본조정	-1,261	-1,262	-1,307	-1,307	-1,339	-1,3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64	1,449	1,344	1,350	1,148	1,314
이익잉여금	16,774	16,374	16,044	15,919	15,049	14,999
자본총계	40,517	40,200	39,730	39,611	27,315	27,418
부채와자본총계	254,374	250,412	224,634	222,331	194,119	192,06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별도 기준

11. Net Capital Ratio(NCR) 영업용순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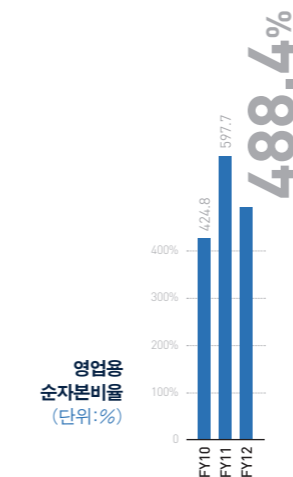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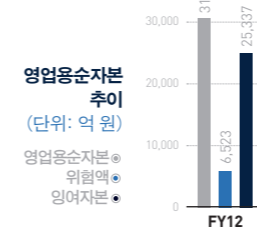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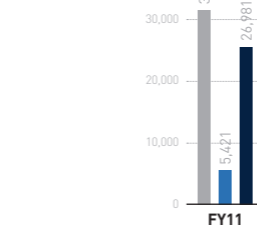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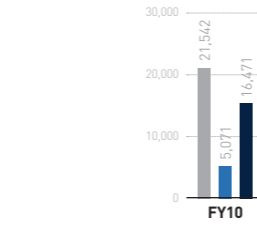
KDB대우증권은 회사의 적정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산정 기준일 현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영업용순자본이란 자기자본에서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재산액에서 고정자산 등의 차감항목과 대손충당금 등의 가산항목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총위험액은 금융시장 악화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 한 것으로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013년 3월말 기준 KDB대우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488.4%로(영업용순자본 31,861억 원/총위험액 6,523억 원),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최저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준인 150%,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신규 매매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20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에 따라 ELS/ELW 신규 상장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수행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3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위험부담여력을 보여주는 잉여자본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며, 2013년 3월말 기준 KDB대우증권의 잉여자본은 25,337억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억 원)

	FY12	FY11	FY10
영업용순자본	31,861	32,402	21,542
위험액	6,523	5,421	5,071
영업용순자본비율	488.4%	597.7%	424.8%
잉여자본	25,337	26,981	16,471



12. 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기본 원칙

리스크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관리하는 리스크관리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면 수익창출의 기회도 사라지는 반면, 과도한 리스크 노출은 주주 이익과 회사가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최고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에서 최적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이익 극대화와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회사가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KDB대우증권은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리스크를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로 세분화하고, 리스크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 및 기준을 마련하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인식·분석·평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의 인력유지와 예산투입을 통하여, Global Standard 수준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KDB대우증권은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 달성을 이루어 왔습니다.

* 리스크 관리 체제

규정 및 제도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 측정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규정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시장리스크관리지침 · 신용리스크관리지침 ·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 운영리스크관리지침 · 해외거점리스크관리지침 · 신탁재산리스크관리지침 · 심사규정 · 자기자본투자관리지침 · 인수업무심사지침 · 부실채권관리지침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위원회 ·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 투자심의위원회 · 리스크관리 전담임원 · 리스크관리부 · 심사부 · 리스크관리자 · 리스크보고자 · 운영리스크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모형 VaR · 내부모형 VaR · 노출금액(Exposure) · 민감도(Sensitivity) · 시뮬레이션(Simulation) · 유동성 Gap ·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KDB대우증권은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규정/지침/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와 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자산의 건전성 및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리스크 관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의 세부내용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관리지침'/'신용리스크관리지침'/'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운영리스크관리지침'/'해외거점리스크관리지침'/'신탁재산리스크관리지침' 등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자산운용 형태 및 노출 리스크 종류별로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지침/기준 외에 투자 및 신용공여 업무의 안정성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자기자본투자, 인수 및 신용공여 관련업무와 모니터링, 추심, 부실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자기자본투자 등 관련 업무의 심의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투자관리지침'/'인수업무심사지침'/'부실채권관리지침'/'부동산PF 리스크관리기준' 등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심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KDB대우증권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고유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고유재산협의회'), 신탁재산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신탁재산협의회'),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 Chief Risk Officer), 리스크관리부, 심사부, 리스크관리자(사업부별), 리스크보고자(부서별), 운영리스크관리자(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리스크관리조직현황



"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리스크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사안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재무건전성비율의 적정수준 설정(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Risk Appetite 결정),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기준 및 비상계획의 승인, 중요한 리스크관리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회사의 총 리스크 한도 설정, 거액의 신용공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주요 변경 및 개선의 승인 등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 거래 또는 신탁재산운용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관련 부서에 대한 적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유재산협의회"와 "신탁재산협의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세부내용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유재산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신규 형태의 거래 개시 또는 신상품 도입의 승인, 가격평가모형 사용 및 변경의 승인, 정책포지션 편입에 관한 사항의 승인,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위험조정 성과평가 기준의 승인, 위원회가 승인한 한도 범위내의 부서별, 영업활동별 한도 배분, 배분된 한도를 초과시키는 리스크 부담행위에 대한 승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변경의 승인 등입니다. 고유재산협의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 Chief Risk Officer)으로 하며, 위원장은 고유재산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래담당부서에 거래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거래담당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신탁재산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신규 형태의 신탁 개시 또는 신상품 도입의 승인, 고유재산으로의 취득 대상 신탁재산 분류 승인,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신탁재산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초과 승인 등입니다. 신탁재산협의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 Chief Risk Officer)으로 하며, 위원장은 신탁재산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탁담당부서에 신탁재산운용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신탁담당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심위”는 회사의 투자 관련 거래에 대한 심의기구로,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투심위의 주요 업무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투자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자산취득행위에 대한 심의, 인수 및 신용공여업무에 대한 심의, 금융투자 건에 대한 부실채권지정 및 포지션이관, 대체가격의 심의 등입니다.

“리스크관리 전담임원(CRO)”은 고유재산협의회 및 신탁재산협의회와 투심위의 위원장으로서 고유재산협의회 및 신탁재산협의회, 투심위 회의를 주재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종합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통하여 회사의 자기자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위원회” 또는 “고유재산협의회” 및 “신탁재산협의회”가 수립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적절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실행하고 “위원회” 또는 “고유재산협의회” 및 “신탁재산협의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경영진 보고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사부는 회사의 자기자본투자, IB인수영업, 신용공여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사의견을 제공하고, 거래집행 이후에는 원활한 회수를 위한 단계별 사후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부는 영업부서와 독립적으로 회사의 투자 관련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포지션에 대한 모니터링, 추심 및 무수익자산(NPL; Non Performance Loan) 관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자는 거래담당부서를 관할하는 사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거래담당자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당해 사업부의 운용포지션 내용, 거래손익 등 관련된 제반위험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보고자는 거래담당부서별 1명씩 선정되어 당해 거래담당부서의 거래내용 및 포지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당해 거래담당부서장과 리스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관리자는 회사 부점별 1명씩 선정되어 리스크통제자가평가(RCSA;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 데이터 입력, 손실사건 등록 등 해당 부점의 운영리스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시장리스크(Market Risk) : 시장리스크란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자산운용상의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표준방법에 의한 VaR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내부모형 시장VaR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VaR(Value at Risk)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주어진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으로 정의됩니다.

VaR는 유용한 시장리스크 측정방법이지만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사건이 발생시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Va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KDB대우증권은 민감도(Sensitivity) 모니터링,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조지표 사용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시장리스크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를 정기적(일간·주간·월간 단위)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에는 시장VaR 이외에 손실한도 모니터링 현황, 회사의 주요 자산운용 현황, 위기상황분석 결과, 재무건전성 측정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Credit Risk) :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이 결제의무 또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스왑 등의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을 중단을 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자산운용상의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별 또는 신용등급별 익스포져(Exposure)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표준모형에 의한 신용VaR 한도관리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모형 신용VaR를 산출할 수 있는 신(新)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 현황에 대한 정기적(주간·월간 단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익스포져가 과대한 주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크며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신용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KDB대우증권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래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고려한 사전 심사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 유동성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또는 운용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통상 매매할 수 있는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자산운용상의 손실가능성(Market Liquidity Risk)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 유동성비율 등과 같은 최소한의 유동성 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Prudential Liquidity Risk)입니다. KDB대우증권은 유동성리스크 측정을 위해 유동성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동성갭(Gap)과 유동성비율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유동성리스크 현황에 대해 정기적(주간 단위)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자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회사의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

KDB대우증권은 통상적인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함께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회사의 유동성 상태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따라 주의, 경계,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운용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 운영리스크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부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Value Chain 분석을 통해 전사 업무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운영리스크의 정교한 관리 뿐만 아니라 전사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사건 관리, 리스크통제자가평가(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핵심리스크지표(Key Risk Indicator) 관리, 리스크 측정을 위한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과거 손실사건을 수집하고, 발생원인 및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사건의 반복적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를 선정하여 리스크별 발생원인, 사건유형, 대응방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통제자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며, 핵심리스크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고급측정법 적용)을 통해 운영VaR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리스크(Legal Risk) : 법률리스크란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법령 및 기타 규제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합니다. KDB대우증권은 법률리스크를 운영리스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

대우증권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별첨된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한영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2년 6월 14일자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5월 2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 및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CONSOLIDATED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연결재무상태표

제 44(당) 기 2013년 3월 31일 현재
제 43(전) 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자산		
I. 현금및예치금	3,529,934	3,271,463
II. 단기매매금융자산	11,918,519	7,863,002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625,271	1,972,663
IV. 파생상품자산	600,843	302,892
V. 매도가능금융자산	3,619,913	4,934,416
VI. 대출채권	1,585,204	1,485,061
VII. 관계기업투자	23,205	23,212
VIII. 유형자산	249,603	257,757
IX. 투자부동산	82,668	103,750
X. 무형자산	78,515	78,057
XI. 당기법인세자산	25,626	11,968
XII. 이연법인세자산	70,914	64,584
XIII. 기타자산	1,027,199	2,094,569
자산총계	25,437,414	22,463,394
부채		
I. 단기매매금융부채	720,797	370,313
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7,181,868	6,272,422
III. 파생상품부채	492,336	277,563
IV. 예수부채	2,074,877	1,740,118
V. 차입부채	8,909,661	7,226,631
VI. 사채	875,161	875,515
VII. 퇴직급여부채	227,185	186,265
VIII. 총당부채	21,456	18,293
IX. 당기법인세부채	-	1,938
X. 이연법인세부채	53	54
XI. 기타부채	882,364	1,521,340
부채총계	21,385,758	18,490,452
자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051,656	3,972,942
1. 자본금	1,703,883	1,703,883
2. 자본잉여금	660,068	660,954
3. 자본조정	(126,159)	(130,70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6,416	134,401
5. 이익잉여금	1,677,448	1,604,409
(대손준비금 적립액)	(16,864)	-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1,212)	(16,864)
II.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4,051,656	3,972,942
부채와자본총계	25,437,414	22,463,394

CONSOLIDATED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 영업수익	3,273,864	3,024,277
1. 수수료수익	380,065	517,231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327,602	266,633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32,402	37,433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121,861	89,665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159,982	263,412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이익	1,310,104	1,039,793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97,899	41,744
8. 이자수익	759,877	654,020
9. 기타의영업수익	84,072	114,346
II. 영업비용	3,132,876	2,812,852
1. 수수료비용	46,378	47,274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178,369	227,239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56,381	42,071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4,982	14,177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649,504	418,861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실	952,696	919,252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및 손상차손	44,937	47,267
8. 이자비용	537,532	449,300
9. 판매비와관리비	570,076	562,898
10. 기타의영업비용	92,021	84,513
III. 영업이익	140,988	211,425
IV. 영업외수익	31,400	27,016
V. 영업외비용	15,271	16,08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7,117	222,361
VII. 법인세비용	30,391	55,444
VIII.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당기 : 125,514백만원, 전기 : 150,053백만원)	126,726	166,917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126,726	166,917
2. 비지배지분 순이익	-	-
IX. 기타포괄손익	2,015	19,616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4,394	22,923
2. 지분변동변동	(1,085)	(292)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2,649
4. 해외사업장외환손익	(8,163)	5,080
5. 포괄손익에대한법인세효과	(3,131)	(10,744)
X. 총포괄이익	128,741	186,533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128,741	186,533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단위 : 원)	378	632

CONSOLIDATED 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 연결자본변동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소 계	비지배 지분	총 계
	연결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2011년 4월 1일 (제43(전)기 기초)	1,020,883	224,833	(133,893)	114,785	1,504,853	2,731,461	-	2,731,46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166,917	166,917	-	166,917
기타포괄손익	-	-	-	19,616	-	19,616	-	19,616
소계	-	-	-	19,616	166,917	186,533	-	186,533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	683,000	437,235	-	-	-	1,120,235	-	1,120,235
배당금 지급	-	-	-	-	(79,517)	(79,517)	-	(79,517)
자기주식 처분	-	219	3,188	-	-	3,407	-	3,407
기타	-	(1,333)	-	-	12,156	10,823	-	10,823
소계	683,000	436,121	3,188	-	(67,361)	1,054,948	-	1,054,948
2012년 3월 31일 (제43(전)기 기말)	1,703,883	660,954	(130,705)	134,401	1,604,409	3,972,942	-	3,972,942
2012년 4월 1일 (제44(당)기 기초)	1,703,883	660,954	(130,705)	134,401	1,604,409	3,972,942	-	3,972,94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126,726	126,726	-	126,726
기타포괄손익	-	-	-	2,015	-	2,015	-	2,015
소계	-	-	-	2,015	126,726	128,741	-	128,741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배당금 지급	-	-	-	-	(53,687)	(53,687)	-	(53,687)
자기주식 처분	-	(927)	4,546	-	-	3,619	-	3,619
기타	-	41	-	-	-	41	-	41
소계	-	(886)	4,546	-	(53,687)	(50,027)	-	(50,027)
2013년 3월 31일 (제44(당)기 기말)	1,703,883	660,068	(126,159)	136,416	1,677,448	4,051,656	-	4,051,656

CONSOLIDATED STATEMENTS OF CASH FLOWS 연결현금흐름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62,727]	82,162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7,117	222,361
2. 손익조정사항	[264,554]	[221,729]
이자수익	[759,877]	[654,020]
이자비용	537,532	449,300
배당금수익	[14,182]	[15,936]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42,737]	[10,05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익	[95,107]	[78,22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90,516]	[35,21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7,554	40,736
지분법평가손익	[1,551]	2,194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226]	-
대손충당금전입액	5,430	3,202
유형자산처분손익	[8,938]	670
무형자산처분손익	-	33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711	23,394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626	1,886
무형자산상각비	9,286	9,756
무형자산손상차손	1,576	1,858
기타자산대손상각비	254	1,340
단기매매금융부채평가손익	8,874	5,86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245,077	69,142
파생상품평가손익	[178,349]	[62,376]
외화환산손익	[6,078]	[11,921]
퇴직급여	61,924	40,767
충당부채전(환)입액	3,163	[4,424]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432,505]	[47,115]
예치금	388,426	[1,853,103]
단기매매금융자산	[4,012,780]	[692,09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557,501]	48,977
대출채권	[105,267]	360,140
파생상품자산	231,936	224,257
기타자산	1,105,492	[184,096]
단기매매금융부채	341,610	[32,230]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664,369	2,730,785
예수부채	334,758	[349,587]
파생상품부채	[136,765]	[146,237]
퇴직급여부채	[21,004]	[9,281]
충당부채	-	[11,083]
기타부채	[665,779]	[133,559]

대우증권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4. 이자수취액	745,501	620,199
5. 이자지급액	[530,318]	[442,577]
6. 배당금수취액	17,460	16,117
7. 법인세지급액	[55,428]	[65,09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80,297	[214,883]
1. 유형자산의 처분	25,832	-
2. 무형자산의 처분	-	3,421
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699	-
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50]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373,346	[194,757]
6. 유형자산의 취득	[10,404]	[19,609]
7. 무형자산의 취득	[11,322]	[13,876]
8. 보증금의 감소	2,146	10,08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1,932	459,335
1.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1,683,031	[498,233]
2. 사채의 감소	[1,011]	[83,442]
3. 자기주식의 처분	3,599	3,407
4. 유상증자	-	1,120,235
5. 임대보증금의 감소	-	[3,115]
6. 배당금의 지급	[53,687]	[79,517]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604]	251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감(I + II + III + IV)	646,898	326,865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27,699	100,834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74,597	427,699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

대우증권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별첨된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한영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2년 6월 14일자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식 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5월 2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제 44(당) 기 2013년 3월 31일 현재
제 43(전) 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자산		
I. 현금및예치금	3,441,858	3,206,562
II. 단기매매금융자산	11,486,900	7,611,754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625,271	1,972,663
IV. 파생상품자산	572,348	302,829
V. 매도가능금융자산	3,314,820	4,715,663
VI. 대출채권	1,585,201	1,485,057
VII.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528,999	380,375
VIII. 유형자산	247,043	255,741
IX. 투자부동산	82,668	103,750
X. 무형자산	78,509	78,026
XI. 당기법인세자산	24,839	10,138
XII. 이연법인세자산	71,055	65,052
XIII. 기타자산	981,726	2,045,538
자산총계	25,041,237	22,233,148
부채		
I. 단기매매금융부채	636,987	370,313
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7,181,868	6,272,422
III. 파생상품부채	487,447	276,263
IV. 예수부채	2,078,117	1,740,975
V. 차입부채	8,659,358	7,061,605
VI. 사채	875,161	875,514
VII. 퇴직급여부채	227,105	186,265
VIII. 충당부채	21,380	18,293
IX. 기타부채	853,774	1,470,357
부채총계	21,021,197	18,272,007
자본		
I. 자본금	1,703,883	1,703,883
II. 자본잉여금	660,068	660,954
III. 자본조정	(126,159)	(130,70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4,865	135,060
V. 이익잉여금	1,637,383	1,591,949
(대손준비금 적립액)	(16,864)	-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1,212)	(16,864)
자본총계	4,020,040	3,961,141
부채와자본총계	25,041,237	22,233,148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계산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 영업수익	3,189,093	3,006,191	
1. 수수료수익	377,113	515,558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293,333	260,198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32,402	37,433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121,861	89,665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이익	159,982	263,412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이익	1,287,836	1,039,166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97,899	38,566	
8. 이자수익	738,234	641,675	
9. 기타의영업수익	80,433	120,518	
II. 영업비용	3,066,890	2,792,362	
1. 수수료비용	52,650	56,397	
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155,755	223,021	
3. 단기매매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56,381	42,070	
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 및 평가손실	4,982	14,177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상환 및 평가손실	649,504	418,861	
6.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실	933,867	915,476	
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및 손상차손	44,847	46,945	
8. 이자비용	534,286	447,205	
9. 판매비와관리비	545,169	545,438	
10. 기타의영업비용	89,449	82,772	
III. 영업이익	122,203	213,829	
IV. 영업외수익	27,972	24,060	
V. 영업외비용	18,541	14,701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1,634	223,188	
VII. 법인세비용	32,513	51,620	
VIII.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적립후 조정이익 당기 : 97,909백만원, 전기 : 155,090백만원)	99,121	171,568	
IX. 기타포괄손익	9,805	3,65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936	9,711	
2.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3,131)	(6,056)	
X. 총포괄이익	108,926	175,223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단위 : 원)	295	649	

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 자본변동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1년 4월 1일(제43(전)기 기초)	1,020,883	223,500	[133,893]	131,405	1,499,898	2,741,793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171,568	171,568
기타포괄손익	-	-	-	3,655	-	3,655
소계	-	-	-	3,655	171,568	175,223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	683,000	437,235	-	-	-	1,120,235
배당금 지급	-	-	-	-	[79,517]	[79,517]
자기주식 처분	-	219	3,188	-	-	3,407
소계	683,000	437,454	3,188	-	[79,517]	1,044,125
2012년 3월 31일(제43(전)기 기말)	1,703,883	660,954	[130,705]	135,060	1,591,949	3,961,141
2012년 4월 1일(제44(당)기 기초)	1,703,883	660,954	[130,705]	135,060	1,591,949	3,961,14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99,121	99,121
기타포괄손익	-	-	-	9,805	-	9,805
소계	-	-	-	9,805	99,121	108,926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배당금지급	-	-	-	-	[53,687]	[53,687]
자기주식 처분	-	[927]	4,546	-	-	3,619
기타	-	41	-	-	-	41
소계	-	[886]	4,546	-	[53,687]	[50,027]
2013년 3월 31일(제44(당)기 기말)	1,703,883	660,068	[126,159]	144,865	1,637,383	4,020,040

STATEMENTS OF CASH FLOWS 현금흐름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34,973]		96,087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1,634	223,188	
2. 손익조정사항	[240,273]	[235,586]	
이자수익	[738,234]	[641,675]	
이자비용	534,286	447,205	
배당금수익	[14,988]	[38,748]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52,415]	[10,80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익	[95,107]	[78,22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90,606]	[32,357]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7,554	40,736	
대손충당금전입액	5,430	3,202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3,044	-	
유형자산처분손익	[8,938]	669	
무형자산처분손익	-	33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9,986	22,942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626	1,886	
무형자산상각비	9,263	9,732	
무형자산손상차손	1,576	1,858	
기타자산대손상각비	254	456	
단기매매금융부채평가손익	8,874	5,86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245,077	69,142	
파생상품평가손익	[169,523]	[63,965]	
외화환산손익	[2,270]	[10,175]	
퇴직급여	61,751	40,767	
총당부채전(환)입액	3,087	[4,424]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286,817]	[18,895]	
예치금	389,488	[1,865,134]	
단기매매금융자산	[3,822,731]	[467,34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557,501]	48,977	
대출채권	[105,268]	191,561	
파생상품자산	247,566	222,459	
기타자산	1,089,783	[150,767]	
단기매매금융부채	257,800	[33,461]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664,369	2,697,683	
예수부채	337,142	[349,676]	
파생상품부채	[136,378]	[144,249]	
퇴직급여부채	[20,911]	[8,728]	
총당부채	-	[11,083]	
기타부채	[630,176]	[149,130]	
4. 이자수취액	726,711	607,629	
5. 이자지급액	[528,166]	[438,300]	
6. 배당금수취액	18,266	38,930	
7. 법인세지급액	[56,328]	[80,879]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14,581		[314,221]
1. 유형자산의 처분	25,832	-	
2. 무형자산의 처분	-	3,060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303,690]	[154,416]	
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54,554	7,895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555,787	[145,488]	
6. 유형자산의 취득	[8,726]	[18,413]	
7. 무형자산의 취득	[11,322]	[17,420]	
8. 보증금의 감소	2,146	10,56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46,653		508,216
1.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1,597,752	[449,402]	
2. 사채의 감소	[1,011]	[83,392]	
3. 자기주식의 처분	3,599	3,407	
4. 유상증자	-	1,120,235	
5. 임대보증금의 감소	-	[3,115]	
6. 배당금의 지급	[53,687]	[79,517]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477]		237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감(I + II + III + IV)	624,784		290,319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363,122		72,803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987,906		363,122

STATEMENTS OF A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4(당) 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13년 6월 21일 / 처분확정일 : 2012년 6월 29일

대우증권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제44(당)기	제43(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64,405		1,541,20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5,284	1,369,635	
2. 당기순이익	99,121	171,5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5,533		75,919
1. 이익준비금	4,029	5,368	
2. 대손준비금	1,212	16,864	
3. 배당금	40,292	53,687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40,292	53,687	
보통주-당기 : 120원(2.4%) / 전기 : 160원(3.2%)			
우선주-당기 : 132원(2.6%) / 전기 : 176원(3.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18,872		1,465,284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대우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3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3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CORPORATE HISTORY

2012

- 11-23 중국국제공고유한공사(BOCI)와 MOU 체결
- 10-18 중국은행(홍콩)과 MOU 체결
- 10-16 영국 티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
- 09-20 자회사 믿음주식회사 설립
- 07-12 싱가포르현지법인 설립
- 05-03 홍콩현지법인 USD 1 억달러 증자
- 03-14 미국 Mercury Capital Advisors와 업무협약 체결
- 02-23 영국 Marshall Wace와 업무협약 체결
- 02-10 국내 증권사 최초 홍콩에 'Global Trading Center' 오픈

2011

- 12-28 터키 이쉬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 제휴 체결
- 12-06 홍콩현지법인 1억 달러 증자
- 11-07 AA+로 신용등급 상승
- 11-03 유상증자 납입일
- 08-30 동경지점 개소식(동경사무소 지점 승격)
- 08-12 한우성해투자자문 북경유한공사 설립
- 01-17 무디스 신용등급 최초 획득(Baa2)

2010

- 12-08 상해사무소 설립
- 12-01 KDB금융그룹 통합 CI 선포
- 10-15 대우증권 창립 40주년 사사(社史) 발간
- 10-05 스위스 Harcourt와 업무협약 체결
- 03-02 대우증권그린코리아 SPAC 아시아 최초 상장

2009

- 10-28 산은금융그룹 출범 및 최대주주 변경 (산업은행 → 산은금융지주)

2008

- 11-17 북경 사무소 개설
- 08-18 여의도 본사 사옥 재매입
- 06-13 은행연계 전용 '다이렉트' 서비스 오픈
- 02-19 말레이시아 CIMB 투자은행과 MOU 체결

2007

- 10-23 중국 인허증권과 MOU 체결
- 11-06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개설
- 08-06 브라질 이타우 금융그룹과 MOU 체결
- 07-13 인도네시아 eTrading 증권사 지분 출자
- 05-04 대우증권 탁구단 '토네이도' 창단식
- 01-16 일본 미쓰비시UFJ증권과 상호 업무협력 계약 체결

2006

- 07-30 국내금융업계 최초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인도네시아)
- 07-03 동경사무소 개소
- 06-12 On-Mate 서비스 오픈

2002

- 10-11 업계 최초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 경영인가 획득

2000

- 05-16 최대주주 변경 (제일은행 외 8개사 → 한국산업은행)
- 01-20 전사적 자산관리시스템(ERP) 도입

1999

- 10-01 대우그룹에서 계열 분리
- 08-30 최대주주변경(대우그룹 → 제일은행 외 8개사)

1994

- 09-29 홍콩현지법인 Daewoo Securities (Hong Kong) Ltd. 설립

1993

- 10-23 과천정보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준공

1992

- 07-07 뉴욕현지법인 Daewoo Securities (America) Inc. 설립

1991

- 05-03 유럽현지법인 Daewoo Securities (Europe) Ltd. 설립

1984

- 05-19 (주)대우경제연구소 설립 (국내 최초 민간인 연구소)

1983

- 12-19 삼보증권(주) 흡수합병
- 10-24 상호 변경(대우증권주식회사)

1975

- 09-26 공모증자, 납입자본금 20억 원 기업공개

1973

- 09-01 대우실업(주)에서 회사 인수

1970

- 09-23 동양증권(주) 설립

DOMESTIC NETWORK

서울강북	PB Class 서울파이낸스	02-734-99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15층 (태평로1가)	
	WM Class 서울역	02-774-1921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2층 (남대문로5가)	
	건대역지점	02-454-84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2 스타시티더글래식500 3층 (자양동)	
	광화문지점	02-736-9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2층 (당주동)	
	노원지점	02-934-25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교보빌딩 4층 (상계동)	
	마포지점	02-719-88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Ⅲ 3층 (도화동)	
	명동지점	02-777-54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개양빌딩 5,6층 (명동1가)	
	성동지점	02-2297-446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나래타워 3층 (행당동)	
	신촌지점	02-332-23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거촌빌딩 3층 (창천동)	
	영업부	02-768-3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KDB대우증권빌딩 1,2층 (여의도동)	
	이촌동지점	02-797-969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소핀센터 2층 (이촌동)	
	장한림지점	02-2248-87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1층 (용답동)	
	청량리지점	02-962-49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흥릉로 28, 성일빌딩 1층 (청량리동)	
	서울강남	PB Class 갤러리아	02-3445-99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더트리나티플레이스 4,5층 (청담동)
		WM Class 강남	02-3429-00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빌딩 3층 (삼성동)
		WM Class 도곡	02-573-55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30길 39, 삼성SE타워 3층 (도곡동)
		WM Class 목동중앙	02-2601-61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벨리스이스턴에비뉴 3층 (목동)
WM Class 압구정		02-545-03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용기빌딩 2층 (신사동)	
WM Class 역삼역		02-568-886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3층 (역삼동)	
WM Class 잠실		02-412-55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4층 (신천동)	
WM Class 한티역		02-561-1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나산빌딩 2층 (대치동)	
가락지점		02-3401-5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2층 (가락동)	
가산지점		02-811-38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타워 2층 (가산동)	
강서지점		02-2691-577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1, 원풍빌딩 2층 (화곡동)	
개봉동지점		02-2616-66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23, 도루코빌딩 2층 (개봉동)	
관악지점		02-875-5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17, 동진빌딩 3층 (봉천동)	
교대역지점		02-592-59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인터내셔널빌딩 2층 (서초동)	
금천지점		02-858-5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21, 건국빌딩 2층 (독산동)	
대치지점		02-3411-3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4층 (대치동)	
목동지점		02-2649-056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2차타워 2층 (목동)	
반포지점		02-534-01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레이안퍼스티지아파트 중심상가 4층 (반포동)	
방배동지점		02-3477-22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8, 소일빌딩 3층 (방배동)	
서초동지점		02-3474-838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대흥서초타워 1층 (서초동)	
송파지점		02-419-5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4, 대준빌딩 3층 (석촌동)	
역삼동지점		02-556-94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1,2층 (역삼동)	
영등포지점		02-2632-87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7, 신한은행빌딩 5층 (영등포동4가)	
올림픽지점		02-404-88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78 올림픽신수촌APT상가 C동 2층 (방이동)	
테헤란밸리지점		02-564-3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1,2층 (대치동)	
경기도 인천		WM Class 동수원	031-224-012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센터빌딩 2층 (인계동)
		WM Class 서현	031-708-05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35, 현대프라자 4층 (서현동)
		부천지점	032-667-77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부천농협빌딩 5층 (중동)
		부평지점	032-505-845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금남빌딩 5층 (부평동)
	분당지점	031-718-33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인텔리지킨스타워 2층 (정자동)	
	산본지점	031-394-094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26, 국민은행빌딩 3층 (산본동)	
	상동지점	032-329-663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가나베스타워Ⅲ 3층 (상동)	
	수원지점	031-245-417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3층 (구천동)	
	안산지점	031-482-00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BYC빌딩 3층 (고잔동)	
	연수지점	032-813-558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만우금로 189, 소양빌딩 2층 (청학동)	
	의정부지점	031-877-8772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8, 교보생명빌딩 2층 (의정부동)	
	인천지점	032-763-4401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72 KDB대우증권빌딩 1,2,3층 (신생동)	
	일산지점	031-921-31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한솔코야 3층 (주안동)	
	주안지점	032-423-1100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KDB대우증권빌딩 3,4층 (주안동)	
	평촌지점	031-386-23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림아크로타워 A동 3층 (관왕동)	
	화정지점	031-938-99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홀인원프라자 3층 (화정동)	

강원	동해지점	033-532-3340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56, 동해빌딩 2층 (천곡동)	
	속초지점	033-636-3900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 보광빌딩 2층 (교동)	
	원주지점	033-745-165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48, 하나로빌딩 4,5층 (중앙동)	
	춘천지점	033-251-8851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59 KDB대우증권빌딩 3,4층 (조양동)	
충청남도	아산지점	041-549-2233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2, 유열시터 5층 (온천동)	
	천안지점	041-562-0311	충청남도 천안시 만남로 9 포스코더샵상가 3층 (신부동)	
충청북도 대전	WM Class 둔산	042-483-655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2층 (둔산동)	
	대전지점	042-253-3301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2층 (은행동)	
	용진동지점	042-627-4100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29-6, 부광빌딩 2층 (홍도동)	
	재천지점	043-642-6600	충청북도 재천시 의림대로 123, 대명빌딩 2층 (중앙로2가)	
	청주지점	043-250-33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KDB대우증권빌딩 1,2층 (북문로1가)	
	경상북도 대구	WM Class 범어	053-751-034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두산워브더제니스 상가 2층 (범어동)
경산지점		053-811-22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2층 (중방동)	
경주지점		054-776-5533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올레KT경주지사 1층 (성동동)	
구미지점		054-451-151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KDB산업은행 2층 (송정동)	
대구중앙지점		053-421-0141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스마트메디타워 2층 (동인동27가)	
대구지점		053-424-0311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5, 덕산빌딩 3층 (덕산동)	
상인지점		053-638-4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상인프라자 2층 (상인동)	
성서지점		053-582-45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4층 (이곡동)	
안동지점		054-841-2266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25, KDB대우증권빌딩 1층 (동부동)	
철곡지점		053-325-5533	대구광역시 북구 철곡중앙대로 411, 우영밸리스 2층 (태전동)	
포항지점		054-277-66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KDB대우증권빌딩 1층 (죽도동)	
경상남도 부산 울산		PB Class 센텀시티	051-742-47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 상가 2층 (우동)
		WM Class 범일	051-644-0077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 KDB대우증권빌딩 1층 (범일동)
		WM Class 서면	051-806-6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7층 (무전동)
		거제지점	055-688-0134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천로 54, 아주비즈니스텔 2,3층 (옥포동)
		김해지점	055-324-2421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밝은메디칼센터 2층 (내동)
	남천동지점	051-625-01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코오롱빌딩 2층 (남천동)	
	녹산지점	051-941-2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5, JH빌딩 3층 (송정동)	
	동래지점	051-554-41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합대로 225, KDB대우증권빌딩 2,3층 (수안동)	
	마산지점	055-297-885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우학건설빌딩 2층 (석전동)	
	부산지점	051-242-3351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KDB산업은행빌딩 5층 (중앙동2가)	
	사상지점	051-327-88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0, M-City빌딩 4층 (래뎬동)	
	사하지점	051-293-664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2층 (하단동)	
	울산지점	052-244-8441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487, 대호빌딩 2층 (약사동)	
	울산남지점	052-258-776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KDB대우증권빌딩 3층 (달동)	
	진주지점	055-742-344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KDB대우증권빌딩 3층 (동성동)	
	창원지점	055-282-6900	경상남도 창원시 삼산구 용지로 106, KDB대우증권빌딩 2층 (중앙동)	
	창원시티지점	055-600-6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브교육문화센터 2층 (대원동)	
통영지점	055-643-888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33, 동인빌딩 2층 (무전동)		
해운대지점	051-743-1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마리나센터 7층 (우동)		
전라북도	군산지점	063-443-1711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70 유엔미프라자 2층 (나운동)	
	익산지점	063-857-8811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26, 엘드타운 4층 (어양동)	
	전주지점	063-288-00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KDB대우증권빌딩 1층 (서노송동)	
	효자동지점	063-227-14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10, 동아빌딩 1층 (효자동1가)	
전라남도 광주	WM Class 광주	062-227-660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KDB대우증권빌딩 1층 (금남로5가)	
	두암동지점	062-267-884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52, 동강빌딩 5층 (두암동)	
	목포지점	061-285-9911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60, 일해빌딩 3층 (상동)	
	순천지점	061-724-442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변영길 149, 국민은행 2층 (연향동)	
	여수지점	061-663-7997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KDB산업은행 2층 (학동)	
	제주도	제주지점	064-755-88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권덕로 44, KDB대우증권빌딩 2층 (일도일동)



GLOBAL NETWORK

Beijing, China

-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Tel +86-10-6567-9699 (9299)
Fax +86-10-6568-7899
2401A, 24th Floor, East Tower, Twin Tower,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 KDB Daewoo Investment Advisory
(Beijing) Co., Ltd
Tel +86-10-6567-9699 (9299)
Fax +86-10-6568-7899
2401B, 24th Floor, East Tower, Twin Tower,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Shanghai, China

-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Tel +86-21-5013-6392 (6391)
Fax +86-21-5013-6395
Unit 013, 28F, Hang Seng Bank Tower, 1000
Lujiazui Ri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hina

Hong Kong

- KDB Daewoo Securities (Hong Kong) Ltd.
Tel +852-2845-6332
Fax +852-2845-5374
Suites 2005-2012,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Singapore

- KDB Daewoo Securities (Singapore)
Pte. Ltd.
Tel +65-6671-9845
Fax +65-6226-3221
Six Battery Road #11-01, Singapore, 049909

Jakarta, Indonesia

- PT eTrading Securities
Tel +62-21-5785-3589
Fax +62-21-574-1443
Wisma GKBI 17th Floor Suite 1715 Jl. Jend.
Sudirman No.28, Jakarta, 10210, Indonesia

Tokyo, Japan

- Tokyo Branch Office
Tel +81-3-3211-5511
Fax +81-3-3211-5544
7F, Yesen Building, 2-3-2,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Ho Chi Minh, Vietnam

- Ho Chi Minh Representative Office
Tel +84-8-3910-6000
Fax +84-8-3910-7716
Suites 2103,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1, HCMC, Vietnam

London, UK

- KDB Daewoo Securities (Europe) Ltd.
Tel +44-20-7982-8000
Fax +44-20-7982-8040
41st Floor,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U.K.

New York, USA

- KDB Daewoo Securities (America) Inc.
Tel +1-212-407-1000
Fax +1-212-407-1010
320 Park Avenue, 31st Floor, New York, NY
10022, USA

Ulaanbaatar, Mongolia

- KDB Daewoo Securities (Mongolia) LLC
Tel +976-7011-0807
Fax +976-7011-0899
406, Blue Sky Tower, Peace Avenue 17,
1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14240, Mongolia



(KDB대우증권 2012 회계연도 Annual Report)에 사용된 용지는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NGO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이 승인하는 산림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중성지입니다. 본 용지는 필지의 표백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염소도 사용하지 않아 다이옥신 발생을 예방한 용지이며, FSC Chain of Custody를 보유한 인쇄업체에서 콩기름 잉크로 인쇄했습니다.